

GS 허진수 부회장 “뱀띠 최고부자”

3054억원 상당 주식 보유로 1위 ...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는 2위에

뱀띠 중 최고 주식 부자는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이 2013년 계사년(癸巳年) 뱀의 해를 맞아 뱀띠 역대 주식보유자를 조사한 결과, 총 456명으로 집계됐으며 최고 주식 부자로 1953년생인 허진수 부회장이 선정됐다. 허진수 부회장은 12월21일 종가 기준으로 보유 주식가치가 3054억원에 달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가 2480억원으로 2위에 올랐으며,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의 동생인 최정운 서울대 교수 1978억원, 구자열 LS그룹 회장 1884억원, 양용진 코미팜 회장 131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 1293억원,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인 박지원 두산중공업 부회장 1123억원, 김영봉 모토닉 회장 1032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뱀띠인 2001년생 중에서는 허용수 GS 전무의 아들인 허석홍 군이 572억원,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위인 구분천 엘비인베스트먼트 사장의 장남 구상모 군도 63억원을 기록했다.

역대 주식보유자 중에서는 2013년에 환갑을 맞는 1953년생이 143명(3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965년생 125명(27.4%), 1977년생 68명(14.9%), 1941년생 62명(13.6%) 순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24>